

EXHIBITION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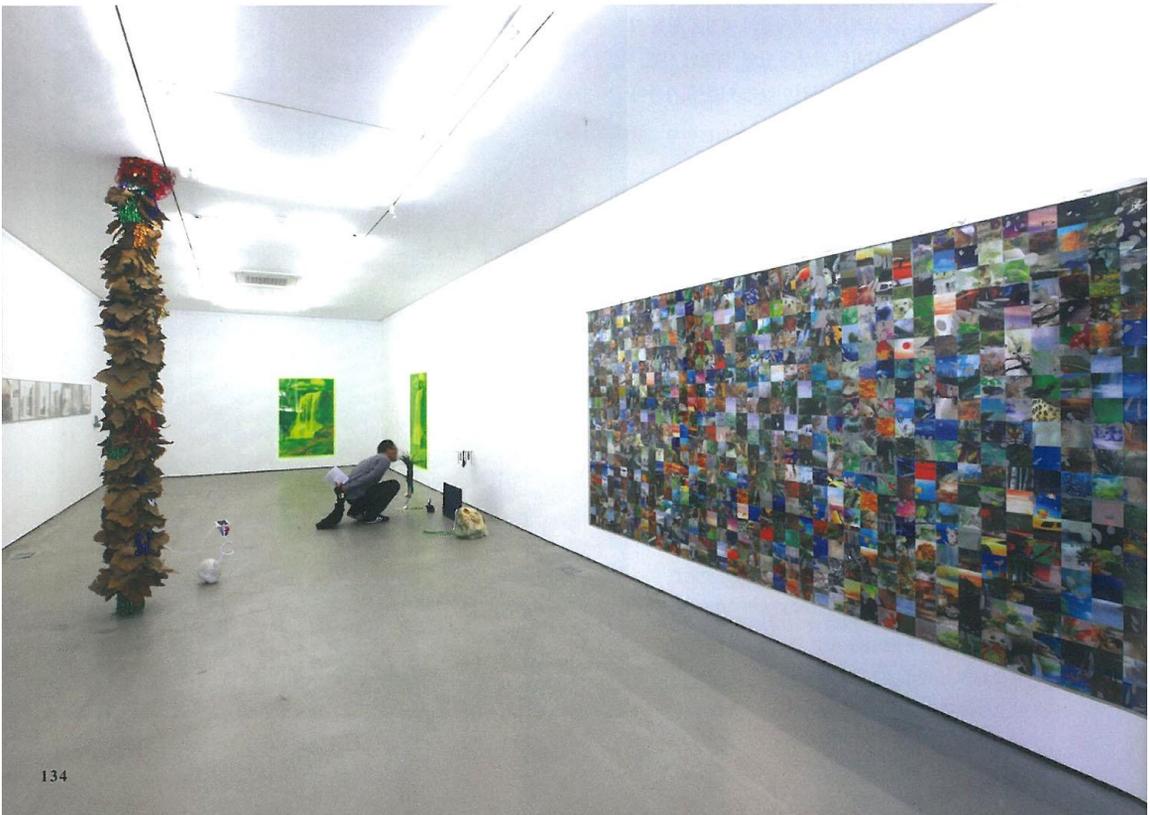
<A Snowflake>

<오 친구들이여, 친구는 없구나>

'주요' 상업화량 및 미술관 목록에서 빠지지 않는 두 곳이 있다. 바로 '국제갤러리'와 '아틀리에 에르메스'. 때마침 이 두 곳에선 흥미롭게 바라볼 만한 기획전이 진행 중이다. 참여한 10명의 작가 역시 작업의 좋고 나쁨을 떠나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은 설익어 매력적이고 앞날이 창창한 이들을 두고 혹자는 '살아남은 작가'라 치부하며 기회주의자라 보기도 하고, 혹자는 그들을 영입해 미술시장을 선점하려는 기득권층의 욕망과 전략이 엇보인다고 말한다. 이렇게 각자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읽히는 현 상황을 때마침 열린 두 전시를 통해 가능해보는 건 어떨까. 그렇다고 해서 이 전시들을 '대표격'으로 내세울 생각은 없다. 다만 이를 계기로 한국 미술계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

<A Snowflake>(국제갤러리 5.25-7.2) 전시 전경

최운 (크리스마스트리와 SS시리즈 6편)(사진 왼쪽) 곤감 건조대, 말린 낙엽, 크리스마스트리 장식, LED전구, 핸드폰, 핸드폰 거치대, 레진 가변크기 2015/2017
최운 <액정 기포 미래 진열>(사진 오른쪽) 렌티큘라, 알루미늄, 에나멜 페인트, PET 필름 122x244cm 2017



작가, 전시 그리고 미술계 시스템

김인선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디렉터

199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의 미술계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드러났다. 1995년에 광주비엔날레가 시작되고 유학파 작가 및 큐레이터가 늘어나면서 한국 미술계 전반에 국제화 바람이 일어났다. 1999년 출현한 대안공간들에서는 기존 화랑계와 달리 전시 형식과 시스템에 변화를 가하며 젊은 작가들의 실험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대미술과 관객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시도했다. 1990년대 이전 일반적으로 작가들의 활동 패턴이 공모전과 대외 화랑 등을 통해 만들어지던 것에 비하면 이후 세대의 행보는 점차 거침없어졌다. 전시 기획자들은 독특한 형식과 콘텐츠를 다루는 젊은 작가를 찾아다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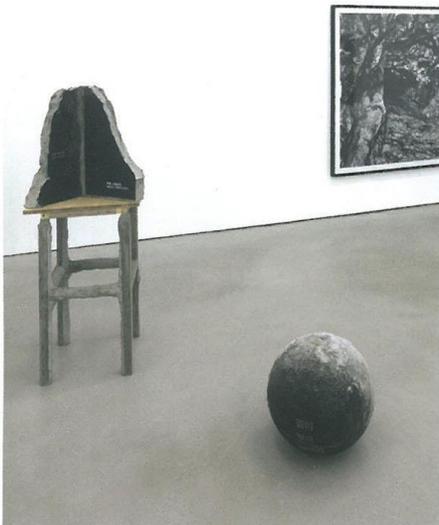
전시 공간에서는 친지들의 꽃다발보다는 작가, 기획자, 평론가들의 방문과 대화가 이어졌다. 가장 권위적이라 여겨지는 국공립미술관들도 젊은 미술인들의 새로운 양상의 활동에 힘입어 신진작가 전시 및 지원 프로그램을 앞 다퉈 마련하며 작가 활동영역의 위계를 무너뜨리고 미술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시작했다. 영리와 비영리로 나뉜 시스템 안에서 상업/비상업으로 성격이 구분되던 작가들도 점차 그 경계를 넘나들게 됐다. 2006년, 2007년 미술시장의 전례 없는 기형적 성장에 어린 작가들의 작품을 투자 상품화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작가 데뷔에 연령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기도 했다. 그야말로 한국의 미술계가 뒤집히는 시기였다.

〈오 친구들이여, 친구는 없구나〉아들리에 에르메스 5.20~7.23 전시 전경
윤형로 <Screenshot 3.02.23>(사진 가운데) BCF나일론,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200×450cm 2017





위 김악현 <Fig. Print 003 l.p.l.> <Fig. Print 001 l.p.l.>(사진 오른쪽) Photograph, archival pigment print on Baryta-coated paper 158×197.5cm 2017
아래 이미레 <히스테리, 엘레강스, 카타르시스: 섬들> 알루미늄, 우레탄, 시멘트에 아크릴 가변크기 2017



2010년대 초반, 미술계에는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가 감지된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실무 경험이 없거나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전시 공간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에 새로움을 보여주던 젊은 작가들과 기획자들은 기성 미술인이 됐고, 미술시장의 거품이 잦아들면서 다시 등장한 신진들은 그들의 자리를 필요로 했다. 그에 비해 한국미술계의 영토는 협소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자신들이 설 곳을 만들어낸다. 그 공간들은 통칭 '신생공간'으로 분류되었는데(이 글에서는 2012년 전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신진 작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artist-run space를 통칭하는 대명사로 쓰기로 한다), 이들 '신생공간'은 기존의 제도나 위계를 벗어나 나름의 시스템을 쌓아나갔다.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내고 담론을 만들고 제도를 비판하였다. 1990년대 말 호기롭던 대안공간의 활동이 이들에게는 또 다른 기성의 틀로 비쳐졌기에 만들어진 또 다른 대안이었던 터이다.

이처럼 신생공간을 중심으로 대안을 추구하는 현상은 사실상 1999년 대안공간들이 등장한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복된 패턴으로 읽히기도 한다. 성에 차지 않는 미술 시스템을 보완해가는 신생공간의 대안적 활동 역시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안고 위태롭게 그 행보를 유지하고 있다. 새로운 세대로 출몰한 젊은 작가들의 미술 경향을 소개하는 자리는 여전히 신생공간, 대안공간, 미술관, 상업화랑을 가리지 않고 만들어졌다.

2017년 비슷한 시기에 국제갤러리와 아뜰리에 에르메스에서 열린 젊은 작가들의 전시 〈A Snowflake〉와 〈오 친구들이여, 친구는 없구나〉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현대미술의 정점에 선 국내의 작가를 소개해온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아직 검증 단계에 서 있는 작가들의 전시를 유지한다는 사실 자체가 특별해 보이기도 하지만, 앞서 서술한 20여 년의 변화 속에서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다. 특히 국제갤러리는 이미 2013년에 〈기울어진 각운들〉(2013.5.17~2013.6.30) 제하의 젊은 작가 조망 기획전시에서 참여 작가 연령을 대폭 낮추었을 뿐 아니라 이후 상업성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국내 젊은 작가를 조망하고자 하는 전시를 매년 선보이고 있다. 아뜰리에 에르메스는 지금껏 그 활동 경력과 심사 등을 통해 검증된 기성 작가들로 이루어지는 전시 프로그램을 유지해오며, 이번 전시에서는 2006년 개관 이래 10년 동안의 활동을 자축하며 그간의 전시 작가들의 연결지점을 공유하는 작가라 여겨지는 이들을 소개하고 있다. 국제갤러리와 아뜰리에 에르메스라는 공간이 지닌 권위에 견주면 이 두 공간의 '젊은 작가들'이란 프레임은 무모해보이기도 하고 현 상황에 따른 미술계의 전략적 행보로 읽히기도 한다. 그리고 매혹적이다. 이들 공간은 각자 영리 공간과 비영리 공간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대하고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있다. 자발적으로 이런 종류의 전시를 수용한 '전시'를 주최하는 자와 이곳에서 '판을 벌린 자' 간의 상대적 의도를 읽어보는 것도 관람자로서 흥미로운 지점이다. 상업화랑의 정점에 서 있는 공간 속에서 젊은 작가들이 순수한 자기세계를 보여주는 데에 온전히 몰두할 수 있을지도 관람 포인트일 수 있겠으나 거대 기관 속에서 얼마나 유연하고 영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한 흥미진진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전시의 타이틀 〈A Snowflake〉와 〈오 친구들이여, 친구는 없구나〉에 담긴 시적이면서 철학적인 표현이 현 미술계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의 상황을 반영하는 문구처럼 들린다.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A Snowflake〉의 기획자 현시원은 "젊은 작가의 프레임보다는 '젊은 작품세계'에 주목하고 각 작가의 개별성에서 드러나는 작품에 대한 의문점을 미시적으로 찾아들어가고자 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전시는 이런 스텐더트라는 수학자가 던진 '눈송이(a snowflake)는 어떤 모양일까?'라는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눈송이 하나하나의 모두 제각각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흔히 '눈(snow)'을 생각할 때 눈송이 하나하나보다는 눈이 내리는 모습, 눈이 쌓인 풍경 그리고 눈사람 따위의 눈으로 만든 모양 등을 떠올리게 된다. 이 전시에 참여한 김익현, 이미래, 박정혜, 최윤 등은 각각 사진, 회화, 조각, 복합매체 등으로 묶여 있는 장르 안에서 전통적인 형식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품고 이들을 확장하며 끌고 나가는 작가들이다. 덩어리와 공간을 물리적 차원을 넘어 독립적인 에너지로서 제시한다든지, 시선의 흐름이 더 이상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은 회화를 탐구한다든지. 전시 공간에는 현 세상의 모습을 현상적이 아닌 것으로 가공하는 주체가 더 이상 작가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시하는 이미지적 경험들이 나열됐다. '눈'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개체가 모이고 쌓여 공룡된 성질을 구축해 나가듯 자신만의 모양새를 만들어낸 작가들은 "아무개의 작품"으로서 본인의 작업세계를 수립하는 과정을 만들며 스스로 '눈'이 되기도 하고 특정 전시를 매개로 하여 하나의 '전시'를 만들어내는 '눈송이'가 되기도 한다. 눈송이로서 자신의 작품을 드러내기 위해 '눈'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눈을 뭉쳐서 무엇을 만들지는 연출을 맡은 기획자가 요리할 일이기도 하다.

아뜰리에 에르메스의 〈오 친구들이여, 친구는 없구나〉 또한 우연찮게도 비슷한 맥락을 보여준다. 아뜰리에 에르메스는 2006년 개관 이래 상업화랑에서 드러나는 프레임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성 작가들을 조망해왔다. 이번 전시는 2017년 재개관을 맞이해 지난 10여 년간의 전시들을 소환하여 젊은 작가들과의 상호 연결점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기획이라고 김윤경

기획자는 말한다. 김민애, 김윤하, 김희천, 박길중, 백경호, 윤향로 등 총 6명의 작품이 크지 않은 공간 안에서 호기롭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었다. 백경호의 의인화된 페인팅은 한 면에 나란히 그리고 뻗백하게 배치된 공간 전체를 내려다보는 시선을 유지하고 있어서 입구에 미로 형식의 구조물을 통과하게끔 배치된 김민애의 구조물과 더불어 전시 공간을 요소화하는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 속에서 영상, 평면, 사진 그리고 오브제 설치 등이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조화를 이루며 색다른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전시를 소개하는 글에는 작가별로 이 공간에서 전시를 했던 기존 작가들과의 연결고리를 서술하고 있으나 막상 전시된 작품들이 특별히 이전의 작품을 소환하는 장치로서의 연계가 뚜렷해 보이지는 않는다. 기획자가기가 막히게 찾아낸 섬세한 연결고리가 있을 뿐 이들은 각자 자신의 작업에 몰두했을 따름인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이 전시에서 서술된 의도처럼 “아틀리에 에르메스의 지난 10년을 과거로 회귀하는(retrospective) 방식이 아니라 다가올 시간의 방향으로 향하는(prospective) 방식으로 호명한다.”(기획자의 글 중)

젊은 작가들에게는 이 전시 공간들이 경험의 장소로서 만족할 것인지 혹은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장소로 보인다. 그래서 아틀리에 에르메스와 국제갤러리는 너무나 공고한 공간성이고 제도권공간이라 이 속에서 꾸러진 전시 작가군의 태도가 상당히 모순돼 보인다는 혹자의 의견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현재 이 전시를 매개로 시스템에 들어온 이들은 시스템에서 ‘받아들여진’ 이들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실현적으로 차용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이다. 이 두 전시는 전시 제목 (A Snowflake)라는 표현에서 연상되듯 눈송이처럼 연약하고 일일이 식별하기 힘든 개체가 모여 눈이라는 풍경을 만들어내는, 개체들이 뭉쳐서 만들어낸 하나의 풍경이 되었다가 기후가 바뀌면 녹아내리고 스스로 사라져버리는 현상을 떠올리게 한다. 이들은 아직 기성의 속성을 작품에서 발휘하며 고정된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는 작가들은 아니다. 여전히 스스로의 변화를 감지해 나가고 있고 본격적으로 상업화랑이나 기성의 틀로 분류되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제스처도 느껴진다. 또 한편으론

참여 작가들은 이미 꾸준히 좋은 작가로 분류되고 소개되어 온 이들이며 그들에게 소위 제도권에서의 전시가 이르다고 말하기에는 미술관의 변화 속도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빠르고 압축적이다. 진통 장르를 비켜간 경향들을 운운하기엔 진부하지만 한국 미술시장의 현황이 아직은 꽤 보수적인 가운데, 국내 최고의 컬렉터들을 고객으로 보유한 국제갤러리에서 이런 종류의 작업을 선보인다는 현상 자체만으로도 그 판매 여부를 떠나서 젊은 작가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다가온다.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젊은 작가로 분류되는 형식과 개념이 모여 있고, 일상이나 자신의 주변 환경을 소재로 하여 이를 주제와 연결하려는 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비슷한 세대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특징적 요소들을 한자리에서 살펴보면서 이들 세대 작가에게 미래의 공간이었을 이곳에서 10년 전이 아닌 10년 후를 바라보게 한 효과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젊은 작가에 대한 담론은 언제나 미술계의 화두였다. 그럼에도 이 전시들에서 유독 이 단어가 돌출되는 것은 기획자가 의도했든 아니든 필연적이라 하겠다. 한편으로 그것은 현재 한국미술계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반영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미술시장에서 안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소비되는 작가들은 일견 기간 경력을 쌓고 그에 대한 꾸준한 검증을 거쳐야 했다. 아직 지속 여부조차 확실치 않은 5년 내의 경력을 가진 작가들이 국제갤러리나 아틀리에 에르메스처럼 제도화된 공간에 대거 참여하는 이 기획에 대한 우려도 종종 접했다. 그러나 매해 ‘젊은 작가’로 인식대는 연령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젊은 작가에 대한 논의는 비영리 시스템에서만 즐기셨을 뿐 스스로 율타리를 쳐버린 것은 아닌지, 영리 시스템에서의 ‘젊은 작가’는 소비적 투자 개념에만 머물러 있어 이들 젊은 작가들이 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아주 좁고 미진하기 때문은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한국 내에서 작가들의 활동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 미술계 종사자로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환기하고자 한다. ●